

2024학년도 제1차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 ◎ 회의일시 2023년 12월 28일(목) 14:00~16:00
- ◎ 회의장소 본관 2층 회의실
- ◎ 참석위원 김00(위원장, 00처장)
이00(00처장)
이00(00팀장)
박00(학교법인 00팀 직원)
김00(학부00)
이00(학부00)
박00(대학원00)
최00(대학원00)
임00(00 대표이사)
- ◎ 배석 반00(00팀 차장)
오00(간사, 00팀 과장)



[2024학년도 등록금 인상률 상한]

	2021년	2022년	2023년	평균	법정 인상률 상한
소비자물가상승률	2.5%	5.1%	3.7%	3.76%	5.64% (평균의 1.5배)

※ 올해 인상률 상한은 5.64%이며, 이는 정부가 등록금 인상 법정 상한선을 공고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최고치임

[안건1] 대학(학부) 등록금 책정

1. 안건 내용

1) 대학(학부) 전체

구분	정원의 외국인	기타
기존 대학	4% 인상	동결

* 입학금 실비용분에 대한 등록금 산입금액: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

* 로올라국제대학은 별도 책정

2) 신설 대학(학부)

(단위: 원/학기)

구분	정원의 외국인	기타	
로올라국제대학	글로벌한국학부	4,504,000	3,607,000
	게페르트국제학부	5,536,000	4,982,000
	글로벌융합학부	5,536,000	-

2. 회의 내용

1) 등록금 인상에 대한 사전 안내

학생위원A	학부 등록금 인상을 하게 될 경우, 인상 전년도에 미리 학생들에게 고지 할 필요가 있음을 건의함
외부전문가위원	학생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인상하지 않는 것이 좋고 학생대표로 참석한 학생위원의 입장도 이해하지만, 한 학기 4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4% 인상시 1년에 40만 원이 안되는 금액인데 그 정도 금액이 1년 전 미리 고지해야 할 만큼 큰 금액인지 그리고 1년 전부터 인상 고지시 교육부의 관계 문제도 있을 텐데 가능할지 문의함
교직원위원C	등록금을 책정하는 것은 예산을 수립하는 것과 관련이 되는데, 대부분의 대학들이 1년 전부터 차년도 예산을 수립하는 것은 정책이나 업무 프로세스상 어렵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대학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을 답변함
학생위원C	학생위원이 요청한 사전 고지의 의미는 등록금 인상이 결정될 경우 학

	교과 학생들 대상으로 인상에 대해 설명하고 학생들을 설득시키는 자리가 필요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됨. 이 부분은 공감하는 바이며, 혹시 총학생회측에서 학생들 대상으로 등록금 인상에 대한 인식조사가 이루어진 게 있는지 문의함
학생위원B	총학생회 출범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관계로 해당 인식조사가 이루어진 않았음. 하지만 최근 어떤 학과에서 등록금 고지 오발행 이슈가 있었는데, 당시 학생들이 많이 컴플레인 했던 것 중 하나가 사전 고지 없는 등록금 변동이었음을 설명함
교직원위원B	등록금 책정을 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 시기를 더 앞당기는 건 어떨지 건의함
교직원위원A	올해는 작년보다 1~2주 앞당긴 상황인데, 적어도 2학기 수입과 지출 현황이 어느 정도 나온 12월은 되어야 차년도 예산을 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그리고 등록금의 경우도 1년 전에 미리 고지하는 건 그 이후의 상황 변동을 반영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답변함

2) 등록금 인상안 및 동결안

학생위원A	등록금 인상 필요성에 대한 설명 뒤에 교육부의 등록금 동결 요청 공문과 전화 연락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이러한 교육부의 요청사항은 권고사항인지 의무사항인지 문의함
교직원위원B	형식상으로는 권고사항이지만 대부분의 대학들은 권고사항으로만 생각할 수는 없을 것임을 답변함
학생위원C	지난 하계대학총장세미나에서 등록금 인상에 대한 논의가 있던 것은 아닌지 그리고 현재 타 대학의 등록금 인상 동향은 어떤지 문의함
교직원위원B	하계대학총장세미나에서 실시된 설문조사에서도 등록금 인상하겠다는 비율이 더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음.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교육부에서 선제적인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현재 인상을 고려하고 있는 대학들이 일부 있는데, 이로 인해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음을 설명함
교직원위원A	연초와는 다르게 현재 서울권 대다수의 대학들이 등록금 동결을 계획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는 올릴 이유가 없어서가 아니라 괜히 인상해서 문제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의 관점으로 보면 될 것임을 답변함
외부전문가위원	결국은 혼자 인상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을지도 몰라서 행동을 못하는 것 같은데, 2023학년도에 등록금을 올렸던 대학들이 어떤 이익을 취했고 현재 어떤 불이익을 받고 있는지 문의함
학생위원C	해당 대학의 경우 2023학년도 등록금 인상 시 인상 수입이 +50여억 원인 반면 국가장학금 II유형 못 받는 지원금이 -20여억 원이므로, 총 +30여 억원 이익으로 판단해서 등록금 인상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음을 언급함
교직원위원C	학부 등록금 인상으로 인한 공식적인 페널티는 국가장학금 II유형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임. 우리 대학의 경우 국가장학금 II유형 지원금이 2023학년도 기준 8억여 원 정도임을 설명함
교직원위원A	등록금 인상 요인이 상당히 많은 데에도 불구하고 인상하기 어려운 이유는, 우리나라 대학들의 경우 정부 재정 지원을 많이 받고 있으므로 교육부의 요청에 반하는 인상을 시행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점을 고려할 수밖에 없음
교직원위원C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결안과 인상안을 같이 제시한 이유는, 인상의 필요성 외에도 인상했을 때의 예산 수립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보고자 함임. 어느 정도 등록금 인상으로 국가장학금 II유형 지원금액을 커버하는지, 그 외 인상 수입으로는 학생경비, 장학금, 교원 인건비 등을 어느 정도 편성 가능한지, 학생 개개인에게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안이 어떤 건지 등에 대해 제시해 보려는 취지가 있었음을 설명함
외부전문가위원	등록금 인상으로 인한 수입 증가분에 대해서 학생을 위해 투자할 수 있는 비율이나 금액이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는 것이 건설적일 것임을 언급함
교직원위원B	등록금 인상에 대해서 학생들이 인상은 반대하니까 올리지 말자는 의견보다는, 올리지 못할 경우 학생들이 어떤 부분들을 감수할 수 있을지 그리고 후배 세대들을 위한 고민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함. 지금 계속해서 등록금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보수되지 못하는 노후 건물이나 시설들이 많아지고 교육환경도 악화될 텐데, 그러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밖에 없는 후배 세대들을 위한 고려도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함을 설명함
교직원위원A	학생위원분들도 사실상 등록금 인상에 대한 필요성이나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된 것 같은데,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이기도 하고 학생 대표로 온 입장이라 인상에 선뜻 동의하기는 어려운 점도 이해함. 그러나 만약 인상이 어려울 경우 학생들한테 꼭 필요한 것들이지만 못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도 같이 이루어지면 좋겠음. 지금 계속되는 등록금 동결의 후유증이 이미 나타나고 있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10년, 20년 지나서 후배 세대들이 이러한 후유증을 온전히 감당하게 됨을 답변함
학생위원C	등록금 인상을 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정부의 규제 때문에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학교가 생각하는 등록금 인상 시점은 이러한 규제가 없어지는 때인지 문의함
교직원위원C	연초만 해도 등록금 인상을 계획했던 대학들이 대부분 입장을 등록금 동결로 바꿀 수밖에 없게 되었지만, 학교 운영상 등록금 인상을 해야 할 사유는 매우 많은 상황임.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으로 인하여 인건비 2.5% 인상이 강제된 면도 부담이고, 최저임금과 각종 공과금, 세금 등에 따른 관리운영비가 대폭 증가한 부분, 각종 건물 및 시설의 유지보수비, 관련 법규들에 의해 집행되어야만 하는 비용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음. 학교 입장에서는 학생들에게 좋은 시설과 면학 분위기를 제공해주고 싶은데 매년 발생하는 경상비만 대응하기도 어려운 상황임. 또한 학교 대외평가 관리를 위해 개선점을 파악해보면 그 해결을 위한 조치에는 항상 예산이 필요하게 됨. 교원확보율도 어느 정도 되어야 첨단학과 정원도 받는데 현실은 인건비 부담에 그것도 어려운 상황임. 사실상 등록금 동결로 가장 많은 피해를 받는 학교가 우리 학교임. 일단 규모 자체가 경쟁 대학 대비 상당히 작기 때문에 공대 연구비라든가 산단 수입 등에서도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설명함
교직원위원A	서울시내 20여 개 대학들의 모집정원을 놓고 비교하면, 우리 대학은 제일 작은 수준이며 타 대학의 모집정원은 우리 대학의 2~3배임. 우리 대

	학은 타 대학 대비 비용에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데에도 불구하고 등록금은 그 대학들의 중간 수준 밖에 안 됨. 학생 1인당 교육비나 교육비 환원율을 봐도 타 대학들의 의대를 제외하면 우리 대학이 그렇게 밀리지도 않음. 이 얘기는 규모의 경제에서 손해 보고 있는 그 갭만큼을 학교가 자체적으로 메꾸고 있다는 이야기임. 이런 부분들도 고려되어야 함을 설명함
외부전문가위원	예를 들어 말하자면 평균등록금이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2025학년도부터 등록금은 신입생 500만원, 2학년 400만원 등으로 차등을 뒀서 미리 고지하는 방안은 어떨지. 물론 그 금액이 우리 대학이 제일 높은 수준이면 안 되겠지만 대기업으로부터 지원받는 타 대학 수준은 되어야 하지 않을까. 대기업으로부터 많은 금액을 지원받는 대학들도 우리 대학보다 등록금이 비싸다는 점도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는 점을 제시함
학생위원A	등록금 인상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학생들도 좋은 교수님들께 우수한 교육 환경에서 수업을 받고 심정이므로 그 부분은 이해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우리 대학만 등록금 인상을 해서 이슈가 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음을 주장함
교직원위원A	안건 1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지만 2024학년도에는 학부 등록금 동결(단, 정원외 외국인인 4% 인상)로 하고, 인상 필요성이나 학교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2025학년도에 등록금 인상에 대해 다시 검토하고자 함을 설명함

3. 의결 사항

- 안건에 대해 출석위원 9명 중 6명 찬성으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
(교직원위원 1인, 학생위원 1인, 외부전문가위원 1인 총 3인은 등록금 인상 필요성에 동참하여 원안인 학부 등록금 동결안(정원외 외국인 제외)에 반대하였음)

[안건2] 대학원 등록금 책정

1. 안건 내용

1) 대학원 전체

입학금		동결
수업료	일반대학원	4% 인상
	전문대학원	경영, 메타버스: 동결 그 외: 4% 인상
	특수대학원	4% 인상

* 상기 등록금 이내 조정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등록금심의위원회 심의 없이 조정 가능

2) 일반대학원 EIC전공 및 신설전공

(단위: 원/학기)

		석사	박사	비고
EIC전공	서비스매니지먼트	7,500,000	8,500,000	
	공공커뮤니케이션 &공공외교	5,891,000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동일
	상담심리	6,190,000		
	부동산학	6,190,000	6,500,000	
	글로벌법무학	6,800,000	8,300,000	신설
신설전공	멘탈코칭&창의적 리더십	인문사회계열 등록금		신설전공(EIC전공 제외)의 경우 해당 계열의 등록금 적용
	반도체공학	공학계열 등록금		

2. 회의 내용

1) 대학원 등록금 인상안

학생위원C	등록금 인상에 대해서는 납득을 하는데, 대학원생 입장에서는 학부 등록금은 매년 동결인데 왜 대학원 등록금은 인상을 하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음. 2024학년도부터는 학부와 대학원 등록금을 같이 인상하면 어떨까 싶었는데 아쉬운 부분임. 또한 등록금 수입을 제외하고 학교의 재정 건전성 확보가 되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학교나 법인 차원에서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문의함
교직원위원B	한국어교육원 수입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국고사업에서도 S등급을 받아 인센티브로 40억여 원을 더 확보했음. 이번에 BK21사업에 새로 선정되었는데 그 사업비는 대학원에 배정될 것임. 또한 대학원 총원률도 증가한 부분도 있고 기부금도 전년대비 1.5배 이상 증가된 것으로 파악됨을 답변함
학생위원C	법인전입금 관련은 올해는 개선될까 싶지만 매년 변함이 없는 것 같아 아쉬움. 수익사업 등도 활성화돼서 재정 개선에 도움이 되면 좋겠음. 또한 학교에서는 지속적으로 대학원 등록금 인상을 계획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물가에 연동되는인지 아니면 학교에서 정한 목표치가 있는지 문의함
교직원위원B	물가도 고려해야 하고 경쟁 대학 등록금도 고려해야 함. 현재까지는 경쟁 대학 대비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2024학년도 각 대학별 인상 여부에 따라 차년도 대응 수준이 정해질 것임을 답변함
학생위원D	현 대학원 등록금은 비싼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함. 인상안으로 제시된 4% 인상도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높은 수준이라고까지 보기는 어려울 것임. 문제는 열악한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게 포인트인데, 그걸 하려면 돈이 투입될 수밖에 없음.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등록금 인상을 하더라도 장학금을 더 지급해서 학생들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학생들이 교육환경 개선 등의 혜택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고 보기에, 등록금 인상은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함
교직원위원C	일반대학원 같은 경우 장학금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해결하려면 등록금을 인상해야 함. 최근 대학원 혁신을 위해 정규직원도 2명 더 투입하여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설명함
외부전문가위원	사립대학의 등록금은 자율화할 필요성이 있음. 국립대가 아닌 사립대에 등록금 동결 강요는 오히려 경쟁력 약화만을 야기할 뿐임을 주장함

3. 의결 사항

- 안건에 대해 출석위원 9명 중 9명 찬성으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

[법률 준수] 「고등교육법」 제11조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2조

1. 회의 통지 및 자료 송부

등록금 심의 위원회 개최일	일시·장소·안건 통지일 준수 여부(7일 전)	회의 자료 송부일 준수 여부 (5일 전)
2023.12.28	여	여

2. 소집·개의·의결 관련 사항

구분	현황	비고
소집 요건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개의(재적 과반수 출석) 정족수 충족	여	
의결(출석 과반수 찬성) 정족수 충족	여	

3. 위원 정수에 관한 사항

구성단위	위원수	비율	비고
학생	4	44.5%	
교직원	4	44.5%	
전문가	1	11.0%	
합계	9		

* 학생 위원 30% 이상, 구성단위별 비율 50% 미만 준수

2023. 1. 4.
위의 사실을 확인함